

예술·철학... 베니스 영화 매력 만끽



문화예술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는 영화 분야에서 '메카'로 손꼽힌다.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칸, 베를린과 함께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매년 시상식이 다가오면 어떤 작품이 '황금사자상(최고상)'을 받을지 전 세계 시네필 관심이 쏠린다.

지역에서도 베니스 영화의 진가를 만나는 교류 행사가 펼쳐진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베니스비엔날레재단과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이 공동 주최하는 '2025 베니스 인 광주'가 오는 24일~3월 2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열린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전장", "귀부인과 승무원", "에체 봄보" 등 작년 베니스영화제 상영작 및 수상작 총 10편을 만나는 이번 자리는 개성 있고 매력적인 베니스 영화를 만끽하는 기회 상영전이다"며 "예술과 철학, 역사와 미학을 투사하는 다채로운 작품이 사유의 진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먼저 24~25일에는 제1·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탄생한 영화 두 편을 선보인다.

24일(오후 7시) 상영하는 자이나 아델리오 작 '전장'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이탈리아 군 병원을 배경으로, 성향이 다른 두 군의관의 고뇌를 조망한다. 2024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필름상(의상상)을 거머쥔 작품으로 1910년대 잔혹한 전장과 사람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이어 25일 오후 6시 30분에는 마우라 텔레로가

'베니스 인 광주' 24일~3월2일
광주독립영화관, 10여편 상영
다채로운 주제, 사유의 폭 넓혀
'베니스 인 서울' 등 전국서 행사

연출한 '베르밀리오'를 상영할 계획이다. 이탈리아의 외딴 산골마을 베르밀리오에 탈영한 군인 피에트로가 찾아온 뒤, 엄격한 마을 교사의 딸 루치아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2000년대 초 시칠리아에서 일어났던 범죄와 감옥에 갇힌 정치인을 그린 작품도 있다. 오는 26일 오후 6시 30분 상영하는 '시실리인의 편지'는 고위급 마피아가 의사소통에 사용하던 작은 종이 '피치니(pizzini)'와 마피아 등 실제 사건을 극화했다. 베니스영화제 황금필름상 소품상을 수상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오브제들이 영상 미학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이던 유럽 사회에 '성적 자유'를 외쳤던 문화 혁명도 드라마에 실린다. 27일(오후 6시 30분) 관객들을 찾아오는 '디바 푸투라'가 그것.

영화는 문화 융성에 앞장섰던 스튜디오 '디바 푸투라'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면서 창업자 리카르

도아 포르노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타들을 조명한다.

필름에는 일로나, 모아나, 에바 등 실존 배우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 있다. 이들은 일명 '포르노 스타덤'에 올라 세간의 관심과 혹평을 동시에 받았는데, 작품은 이들이 '미래의 디바(디바 푸투라)'로 묘사하며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아울러 19세 소년 레오나르도가 런던으로 유학 간 뒤, 길 잃은 영혼을 '문학'으로 치유하는 이야기도 있다. 지오바니 토르토리치의 자전적인 데뷔작 '19'는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상영작으로 선정되면서 평단의 관심을 받았다. 28일 오후 7시 상영.

이 밖에도 3월 1일(오후 3시) '밤', 오후 5시 30분 '아메리칸 백야드', 오후 7시 40분 상영하는 '혹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파트2)'도 저마다 흥미로운 시놉시스와 예술성으로 인정을 받은 작품들이다. 각각 현대인의 소외, 기품 있는 고딕호러, 예상치 못한 방문객과의 조우를 그린 작품들이며 '혹 실례가'는 관람료 5000원.

또한 2일에는 1974년 첫 개봉한 뒤 베니스클래식에서 상영했던 '귀부인과 승무원', 베니스클래식에서 최우수 복원상을 받은 1978년작 '에체 봄보' 등 고전 영화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베니스 인 서울' 등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관람료 1만 원(단체 9000원), gift4u 홈페이지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무분별한 개발에 관한 성찰과 고민

정영주 시인 시집 '달에서 모일까요' 펴내

물질문명이 고도화된 현대사회는 무한정주를 반복하고 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다. 맹렬한 속도로 내달리는 문명이 마지막으로 도달할 지점은 어디일까.

정영주 시인은 인간과 자연, 문명과 생명의 관계를 특유의 상징적 언어로 형상화한다. 이번에 펴낸 시집 '달에서 모일까요'(상상인)는 인간이 서야 할 자리에 성찰과 깊은 고민을 담고 있다.

"...더구나 숙주인 인간들, 제발 지구에서 떠나라고/ 강과 산이 피켓을 들었다네/ 누가 시위를 부추기는 건지/ 태초의 계약이 부재여서/ 오염된 공기를 어디서 세척해야/ 다시 자연과 재계약할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죽음을 관장 못 하니/ 으으 아 아 ~ / 전염의 공포! / 답론만 폭발인지/ 달에서 모여 회의라도 하시지요, 지구인들!..."

위 시 '달에서 모일까요'는 시집의 전체 맥락을 관통하는 표제시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가져온 파괴의 현실을 비유적으로 그렸다. 회복이 어려운 불능의 상황, 불모의 경지로 내몰린 기술 문명의 폐해가 오롯이 담겼다.

그러나 이를 풀어내는 방식은 무겁거나 심각하



지 않다. 가볍게 스케치하듯 세상의 단면들을 보여줌으로써 위기에 처한 지구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시작(詩作)의 효과를 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인의 역량이 가늠된다.

황정산 평론가는 해설에서 "그의 시들은 이 납작해진 우리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인간힘이다. 사람들이 삶의 공간에서 밀어내거나 잊어버린 자연물들을 떠올리고 그것에 깃든 정령들을 다시 불러낸다"고 평한다.

한편 정 시인은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시집 '아버지의 도시', '말할고래' 등을 펴냈으며 단국대 문예창작과 박사를 졸업했다. 조선대, 광주대, 초당대 등에서 강사를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두개의 북채 사이 신명나는 우리 가락

쌍채북춤보존회, 오늘 빛고을국악전수관 전통 국악 레퍼토리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 공연 장면. <내드름 제공>

쌍채북춤보존회 내드름(이하 내드름)은 박병주가 1991년 전남도 지정 무형유산 진도북놀이 양태 육류, 소포결농농악 설북 내식류를 전승·보존하기 위해 창단했다. 팀명과 같이 두 개의 북채(쌍채)를 쥐고 추는 '쌍채북춤'으로 '흥'을 선사해 왔으며 현재 60여 명 회원이 활동 중이다.

내드름이 을사년을 맞아 '복(福)이 스르륵, 쌍채북춤 그 위에 꿈을 싣고'를 13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펼친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이 목요국악 일환으로 준비한 무대이며 다양한 전통공연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다.

먼저 우리 풍물의 맥이자 흥을 돋우는 '사물놀이'가 울려 퍼진다. 소리를 이끄는 상쇠는 강영순이 맡으며 정(김지영), 장고(전순정), 북(서희숙·소은희)의 울림으로 채워진다.

궁채와 열채로 울림을 만드는 '얕은반설장고'는

홍성순 외 3인 가락에 실린다. 이어지는 '장고와 북시나위' 무대에는 이정석과 진준환이 출연할 예정이다.

대미는 '쌍채북춤'으로 장식하며 곳곳이 장단은 박병주가, 자진모리는 박영춘 등 3인이 들려준다. 쇠, 장고, 징과 북, 나각·태평소의 가락이 우리 신명을 더한다.

빛고을국악전수관 류효진 학예연구사는 "이번 행사를 비롯해 국악전수관 건물 전체를 활용한 국악복합 테마프로그램 '국악탐험대'를 파일럿 형식으로 오는 22일 펼칠 계획이다"며 "올해에도 광주, 전남의 아름다운 '울림'을 만날 수 있는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석 무료, 네이버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가족과 커뮤니티' 등재학술지 선정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가족 문제, 인문학 관점 연구

가족의 개념과 범주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전통 개념의 가족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다.

개인화, 분자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의 구성, 역할에 대한 재정립은 물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담론이 필요한 시대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가족과 커뮤니티'

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가족과 커뮤니티'는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이 수행하는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에 초점을 맞췄다. 가족과 커뮤니티를 둘러싼 담론과 시각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모색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지난 2020년 창간된 '가족과 커뮤니티'는 연 2회 정기 발행해 왔다. 기존 논문집 성격 학술지와 달리 '특별기고'를 비롯해 '현장&Issue', '서평' 등 학술, 현장과의 연계를 다각도로 시도해왔다.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관계자는 "'가족과 커뮤니티'의 문제를 기존의 가족학, 사회학, 인류학 중심에서 탈피해 인문학의 관점에서 연구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제 간 융복합, 연계를 매개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